

들어가기

- 세상은 자신을 드높이기 위해 남을 짓밟고 오르지만, 우리는 자신을 낮추면서 기쁨을 찾는 참으로 이상한 집단이다.
- 자기소멸(自己消滅)에 대한 두려움
-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한다.

무대 위에서 내려오다

- 뱀의 머리보다는 용의 꼬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의 가치이다.
-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진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 세상은 무대 위에 오르는 것만 가르치고, 내려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육화의 영성

-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마태오 20:25-28)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마태오 23:11-12)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사람이다."(루카 9:48)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사람이다."(마태오 18:4)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마태오 19:14)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예수님.(요한 13:1-20)
-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필리피 2:6-8)
- 육화 그 자체가 겸손을 내포하고 있다. 그 어떤 경우든 겸손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교의 영성이 아니다.
- 주님의 계명은 겸손한 사람만이 지킬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겸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내 몫과 내 몫이 아닌 것

- 인생에는 내 몫과 내 몫이 아닌 것이 있다. 자신의 몫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마음과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 자신의 나약함과 주어진 상황을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육화의 영성
- 컵의 행복론: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작아지십시오. 당신께 하나 가득 넘쳐흐를 것입니다.

겸손은 하늘나라의 열쇠

- 우리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그분께서 당신의 은총과 사랑으로 그 빈자리에 채워주신다. 그것은 '텅 빈 충만'의 체험이다.
- 겸손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마태오 15:21-28)
- 다른 이들을 드높이는 것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드높이는 것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 존재론적 회심: 우리는 각 객체이며 하나인 존재들.
-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겸손할 수 없다.

교황님 기도 네트워크(기도의 사도직) -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프러스 친구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eaop> 홈페이지 <http://pwpnap.jesuit.kr/>

영적 교만과 겸손

-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어 악마에게 받으신 세 가지 유혹.(루카 4:1-13)에서 첫 번째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유혹은 '부(富)에 대한 욕심'을 의미하고, 두 번째 악마에게 경배하면 보이는 모든 나라들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은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망'을 시험하며,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보호해준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은 '영적 교만'을 시험한 것이다.
-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타락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 교만 밖에 없다.
-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총과 자비를 청하는 것이다. 가난한 과부처럼.(루카 21:1-4)

엑스트라의 충만한 기쁨

-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필리피 2:5-9)"
- 스스로 죄인임을, 부족함을,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 스스로를 낮추며 얻게 되는 영적 충만과 위로의 체험은 하느님의 손길이 나를 드높이시는 순간이며, 텅 빈 충만의 체험이다.

텅 빈 충만

-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요한 8:37)"
- "그러므로 하느님의 강한 손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1 베드로 5:6)"
- 우리에게 빈자리가 있을 때 영적 충만과 위로의 체험이 있다. 따라서 나약함, 상처, 실패 그리고 좌절이 '텅 빈' 자리이고, 성령의 현존이 '충만'이다. 하느님은 텅 빈 자리에 충만히 계시는 분이시다.
- 텅 빈 충만은 하느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그분이 당신의 사랑을 채워주시기에, 우리의 나약함, 부족함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충만히 계시다.

나약함과 실패의 영성

- 하느님은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나약함과 겸손을 통해 당신의 뜻을 완성하신다.
- 주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빈자리에 당신의 은총을 충만히 채우시니,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나의 나약함은 나의 자랑이다. 그것은 작고 보잘것없음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겸손이다.
- "정녕 주님의 권능은 크시고,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집회서 3:20)
- "이로울 것이 없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으렵니다. ... 주님께서,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코린토 후서 12:1-10, '바오로가 받은 환시와 계시')

겸손과 나약함으로의 초대

교황님 기도 네트워크(기도의 사도직) -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프러스 친구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eaop> 홈페이지 <http://pwpnap.jesuit.kr/>

- 내가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내게 주신다. 나의 상황을 낮추시고 스스로 겸손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은 바로 겸손으로의 초대인 것이다.
- 우리를 겸손으로 초대하는 실패와 좌절은 소중한 체험이다.

천한 것이 거룩한 것이다.

- 우리들의 화려함, 성공, 강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패, 좌절, 상처, 어둠과 나약함이 바로 성모님께서 발현하시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곳이다.
- 낮고 천한 곳, 그리고 어둠과 상처 속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곧 삶의 진리이며, 불편한 진실이다.
- 겸손만으로 부족하다. 천해져야 한다.
- 오늘 하루도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몫을 찾아가는 은총을 청해본다.

엑스트라의 영성

- 엑스트라의 영성은 무대 한 가운데에서 내려와 주인공이 아닌 조연과 엑스트라의 몫을 살아가는 것이다.
- 바로 그 사람(the one)이 아니라, 그저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one of them)
- 세상은 역사적 위인들이 이끌어 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즉 엑스트라들에 의해 이어져 온 것이다.
-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핵심과 뿌리는 무엇이었나? 아담은 하느님처럼 되겠다는, 즉 하느님의 자리에 내가 있고자 했다.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 되고자했던 것이다.
- 우리 모두는 엑스트라이며, 그 누구도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오로지 주님만이 세상이라는 무대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다.

맺음말

- 강함과 성공 그리고 화려함이 아니라 나약함과 실패 그리고 가난함이 진정한 가치이며, 그를 통해 우리는 부활을 체험한다. '텅 빈'은 죽음이고 '충만'은 부활이다.
- 우리의 나약함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그를 통해 그분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빈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히 머무시는 것이다.
- 겸손을 실천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내가 하려고 하니 어려운 것이다. 인간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느님은 하실 수 있다.(마태오 19:26)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빈자리를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때 하느님께서 일하신다. 텅 빈 충만의 체험, 그것은 신앙체험이다.